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Death Attitude on Death Anxiety

임송자, 송선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Song-Ja Lim(erin64@hanmail.net), Sun-Hee Song(shsong@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개인 특성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요인 별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천안시, 아산시 및 용인시에 소재한 대학의 대학생들과 천안시, 아산시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들로 총 32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개인 특성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 하위 요인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요인에서는 일반 성인, 종교가 있는 사람, 기혼자가 긍정적이었고, 죽음에 대한 회피요인에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 여자, 기혼자가 긍정적이었으며, 죽음에 대한 개방성요인에서는 일반성인, 종교가 있는 사람, 기혼자의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둘째, 개인 특성에 따라 죽음불안에 차이가 있었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정서적 불안요인에서는 대학생, 종교가 없는 사람, 여성 및 미혼자의 죽음불안이 더 높았고,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요인에서는 결혼유무만 차이가 있어 기혼자 보다 미혼자의 불안이 더 높았다. 셋째,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은 상관이 있었다.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불안의 하위 세 요인 모두와 부(-)의 상관이, 죽음에 대한 회피는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에만 정(+)의 상관이, 죽음에 대한 개방성은 인지·정서적 불안에만 정(+)의 상관이 있었다. 넷째,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회피는 죽음불안의 하위 세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죽음에 대한 태도 | 죽음불안 |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out the effect and difference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the death attitude on death anxiety. The college students who study in the area of Chonan, Yongin, and Asan and the adults who live in the area of Chonan and Asan enrolled for this study. We analyzed the survey data from 325 responses finally. The results ar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adults are more positive than college students, religious people are more positive than non-religious people, female are more positive than male, and married people are more positive than unmarried people in the death attitude. Second, college students are more positive than adults, non-religious people are more positive than religious people, female are more positive than male, and unmarried people are more positive than married people in the death anxiety. Third,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death anxiety and the death attitude. The fear on death has negative correlation on all sub-variables of the death anxiety. Avoidance on death has positive correlation on the physical change anxiety, and openness on death has positive correlation on the cognitive and affective anxiety. Finally, It showed that the death attitude are affected by the death anxiety. The death anxiety was not much, if the fear on death are more little, the death anxiety was much, if the avoidance on death are much.

■ keyword : | Death Attitude | Death Anxiety |

I. 서론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길게 늘려놓았지만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주제는 편안한 것이 아니며 금기시 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기피하거나 거부한다. 특히 성장만을 강요하는 현대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가속화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다[1]. 더구나 비교적 죽음과 가까이에 있는 노인들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정적이며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희박하다[2].

사회적 분위기 역시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하며 죽으면 다 끝이라고 인식하거나 절망과 두려움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죽음조차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므로 죽음에 대해 탐색할 기회가 없으며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고 막연한 죽음불안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는 인식은 삶에서 죽음을 보기에 그런 것이고 죽음에서 삶의 방향을 보면 삶과 죽음은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성장과 인간의 잠재력 발달에 중요한 의의가 되기 때문에[3] 죽음을 올바르게 수용하여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와 연결되어 좋은 삶은 좋은 죽음을 맞게 해 줄 것이며, 좋은 죽음이란 결국 좋은 삶의 마무리일 것이다.

좋은 삶과 좋은 죽음을 위해 죽음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삶의 태도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삶의 마지막인 죽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비하여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부정적 태도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려한다. 이런 이유로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들[4-8]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그 중 연령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이를 먹어갈수록 죽음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대부분 노인층으로 집중되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적다. 발달단계상 노인이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는 해도 죽음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죽음의 인식여부가 삶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면 대학생이나 비 노인층 성인에게도 중요하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살아야 할 이들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에 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한편, 주로 수용보다는 불안을 중심으로 개념화한 연구가 많았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 즉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죽음불안이란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인지·정서적 불안 및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을 포함하며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 및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를 포함한다.

죽음불안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죽음불안과 각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 연령은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지만 결과는 일관되지 않아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1][20], 연령이 많아질수록 불안이 낮다[21], 상관이 없다[32]등 다양하고, 죽음불안 역시 연구대상은 주로 노인이었다. 그러나 죽음불안이 노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연령층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살아야 할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아통합감이 높은 노인의 죽음불안이 낮으며[9] 삶의 의미수준이 높거나[10] 죽음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11] 죽음불안이 낮은 반면 아플 때 죽음불안을 많이 느꼈다[11]. 또 죽음준비교육 후 죽음불안이 감소[12]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들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을 각각 분석하고 있을 뿐, 이들 두 요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태도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역시 찾기 힘들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죽음불안이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신의 죽음

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전 세대를 아우르는 높은 자살율과 사고사 등은 죽음이 노인의 문제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죽음불안을 줄여주고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남은 생을 보다 의미 있게 살며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고 모든 연령층의 높은 자살도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관이나 종교기관 등을 중심으로 죽음준비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노인층인 대학생과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 요인별로 분석하여 그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개인 특성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 둘째, 개인 특성에 따라 죽음 불안에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 넷째,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죽음에 대한 태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연구 [14]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죽음을 생각해본 적이 있었고(98%) 죽음을 생각할 때 '편안하다' 또는 '담담하다'고 응답하여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죽음태도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감정, 인지 및 신념[15][16]이므로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

구자에 따라 정의 또한 다양하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삶의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삶과 관련이 깊다. 즉 자신의 삶의 환경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어떻게 죽음을 인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모습과 삶의 길이 달라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모순이 있어 죽음의 보편성은 인정하지만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이성적·지적 수용은 하면서도 감정적·심리적으로는 거부한다[4][5]. 즉 죽음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일이라고 금기시한다 [5].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노년기에 죽음과 임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준비를 갖추는 것을 성공적인 노화의 필수 조건으로 꼽는다[5-7][17]. 또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죽음불안은 적고 생활만족도는 높았으며[12],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 죽음불안, 삶의 태도,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18].

선행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은 성별, 연령, 종교, 교육 수준, 건강수준 등이다. 또한 세부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회피, 개방성 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죽음태도와 관련한 연구들의 결과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데 이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감정적 요소를 많이 안고 있어 연구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며[4-5][19], 연구의 시기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2].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의미와 중립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분류되었으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다[13]. 연령이 증가할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결과[1][5][20]와 연령이 많아질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결과도 있었다[22][23]. 대학생의 죽음관련 태도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수용 및 의미는 부정적이고, 죽음에 대한 정서는 불쾌한 반응이며 죽음 직면 상황에서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대상자의 76.4%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고, 죽음을 죄에 대한 처벌(80.4%)로 생각했으며, 죽는다는 것을 삶의 마지막 과정(53.3%)이라고 여겼다. 죽음이란 말과 연상되는 단어로는 '끝, 종말' '허무감' '두려움' '슬픔' 등 다양했다.

죽음과 관련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으로 ‘가족과의 이별과 슬픔(38.8%)’을 꼽았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으로 ‘삶이 끝남에 대한 두려움’ 못 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 등을 꼽아 대학생들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즉, 대학생들에게 죽음의 의미는 인생의 좌절로 부정적이었다[24].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생활만족이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25] 죽음에 대한 태도가 확일적이지는 않았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장년층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삶의 만족이나 죽음불안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26].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종교는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있으며, 단순히 종교유무가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종교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보기도 하였으나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결과[1][27-31]가 있는 반면 오히려 더 두렵다는 태도를 보인 결과[20], 종교와 죽음태도는 상관이 없다는 결과[22]도 있었다.

성별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연구에서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서혜경·윤민석[11]은 어느 쪽이 죽음 수용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보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여성이 죽음에 대해 보다 많이 생각하며 불안도가 높다는 결과[20-21]가 있는 반면, 성별과 죽음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결과도 있었다[32]. 또 남성은 존재의 정지 및 상실이 가장 불안하고 여성은 임종 불안이 가장 높다는 결과도 있었다[20].

2. 죽음불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죽음불안 관련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연령별, 종교생활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활동 참여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는 일관되지 않아 노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죽음불안과의 관계는 어떤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죽음불안이란 죽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인간의 공포, 혐오감, 파멸감, 거부, 부정 등의 부정적 감정들을 통틀어 말한다[17]. 그러나 존재의 정지에

서 오는 두려움과 죽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두려움을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21], 모든 불안의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33].

선행연구들에서 죽음불안과 관련하여 사용된 변인들은 주로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건강수준, 경제수준 등이다[21]. 또 우울감[34]이나 자아통합감[35], 삶의 태도[36], 생활만족[37]이나 호스피스 활동[38]등의 변인도 있다.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데 이는 개인의 성격적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서로 다양하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이다.

연령과 죽음불안과의 관계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커진다는 결과[1][20]가 있는 반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죽음불안이 낮아진다는 결과[21-23][39][40]도 있었다. 그러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힌 연구[32]도 있어 죽음불안과 연령과의 관계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김태현·손양숙[1]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죽음불안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노인들이 젊은 성인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죽음불안을 나타낸다고 보고하나 구체적 양상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노인들이 성인초기의 성인들보다 죽음을 덜 두려워하나 성인 중기의 성인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도 있었고[41], 노인이 성인보다 죽음불안이 적지만 젊은 성인들보다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결과도 있었다[42].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종교를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있으며, 단순히 종교유무가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종교성과 죽음불안과의 관계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교와 죽음불안간의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죽음불안이 낮다는 연구결과[1][28-30]가 있는 반면, 오히려 더 두렵다는 연구결과[20]도 있고, 종교와 죽음불안은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22]도 있다.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보고[4]와 내세를 믿지 않는 노인의 죽음불안이 더 높다는 보고[22]가 있으며, 내세에 대한 믿음과 죽음불안은 상관이 없다는 보고[43]도 있다. 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의 죽음불안이 낮다는 연구결과[20]도 있었다.

성별과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에서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여성이 죽음을 보다 많이 생각하고 불안을 많이 느낀다는 결과[22][24]와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죽음불안이 높다는 결과[9]가 있었고, 남성은 존재의 정지 및 상실불안이 가장 높지만 여성은 임종 불안이 가장 높다는 결과도 있었다[22].

3.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과의 관계

죽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죽음불안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 간에는 높은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을 각각 분석하였고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간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의 의미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은 채 혼용하고 있었다[8][12].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과의 관계와 관련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통합감과 나이라는 결과[5]가 있었고, 죽음불안에는 주관적 건강상태만 유의하다[44]는 결과도 있었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자아존중감이 달라지며[5],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죽음불안이 낮다는 결과[10]와 삶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죽음불안이 낮고 자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다[33]. 박형규[5]는 생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일생을 수용하는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자아통합감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중장년층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불안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26]. 또 대학생들이 죽음준비교육 후 죽음불안이 감소했고 죽음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죽음불안과 죽음에 대한 태도 간에는 상관이 없다는 결과가 있었고[12], 죽음준비교육 후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결과도 있었다[45].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 천안시의 H대학, 아산시의 S대학 및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K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천안시·아산시의 성인들이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이 243명(74.8%), 성인 82명(25.2%)이었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194명(59.7%), 여성 131명(40.3%)이었다. 결혼유무는 미혼이 243명(74.8%), 기혼이 82명(25.2%)이었고, 연령은 20대가 246명(75.7%), 일반 성인 79명(24.3%)이었다. 종교 유형은 없음이 153명(47.1%), 있음이 172명(52.9%)이었다. 생활 정도는 중이 215명(66.2%), 상이 92명(28.3%), 하가 18명(5.5%)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특성		인원(명) n=325	백분율 (%)
연령	대학생	246	75.7
	일반	79	24.3
종교	없음	153	47.1
	있음	172	52.9
성	남자	194	59.7
	여자	131	40.3
결혼	미혼	243	74.8
	기혼	82	25.2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충남 천안시의 H대학, 아산시의 S대학 및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K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천안시·아산시의 중·장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1년 5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였으며 본 연구자와 2명의 조사자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연구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조사원이 부연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전체 350부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 중 기제가 미비한 것 25부를 제외한 325부를 자료 분석

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9.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각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신뢰성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t-test,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3.1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Collett와 Lester [46]가 만든 Fear of Death Scale(FODS)를 토대로 김은희·이은주[45]가 개발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한 1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하위 요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회피’, ‘죽음에 대한 개방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Cronbach's $\alpha=0.673$, ‘죽음에 대한 회피’가 Cronbach's $\alpha=0.638$, ‘죽음에 대한 개방성’이 Cronbach's $\alpha=0.618$ 이었다.

3.2 죽음불안

죽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Templer[47]의 죽음불안 척도(Death Anxiety Scale:DAS)를 장휘숙[48]이 번안하고, 최영임[36]이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5문항의 진위형 척도로서 문항에 대해 ‘그렇다(1점)’, ‘아니다(0점)’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Likert 형식의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은 ‘인지·정서적 불안’,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 ‘시간의 흐름이 빠름에 대한 불안’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인지·정서적 불안’이 Cronbach's $\alpha=0.660$,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이 Cronbach's $\alpha=0.713$, ‘시간의

흐름이 빠름에 대한 불안’이 Cronbach's $\alpha=0.698$ 이었다.

VI. 연구 결과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차이

[표 2]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로 개인특성에 따라 죽음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연령($t=5.939$, $p<.001$), 종교($t=-5.466$, $p<.001$), 결혼($t=6.433$,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인($3.15\pm.42$)이 대학생($2.80\pm.47$)보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는 김형철[12], 서혜경[21], 김은실[40] 등의 결과와 맥을 같이했다. 종교가 있는 사람($3.02\pm.49$)이 없는 사람($2.75\pm.42$)보다 죽음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사람이 더 긍정적이라는 최영이[31]의 결과와 같았으나 종교가 있는 사람이 더 두려워한다는 조지연[20], 상관이 없다는 이경희[8]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후세계를 믿는 종교인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비종교인에 비해 두려움이 덜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기혼자($3.17\pm.43$)가 미혼자($2.80\pm.46$)보다 죽음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죽음에 대한 준비도가 높다고 한 전영기[34]와 맥을 같이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요인에서는 연령($t=5.102$, $p<.001$), 종교($t=-4.105$, $p<.001$), 결혼($t=5.560$, $p<.001$)에서 차이가 있었고, 죽음에 대한 회피요인에서는 종교($t=-2.442$, $p<.05$), 성($t=-2.982$, $p<.01$)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죽음에 대한 개방성요인에서는 연령($t=6.075$, $p<.001$), 종교($t=-5.044$, $p<.001$), 결혼($t=6.280$,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개방성요인은 성별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거나 두려움을 갖게 하는 요인은 연령차이, 종교, 배우자 유무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회피요인에서는 연령과 결혼유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있고 종교유무와 성별에서만 차이가 있어 종교인과 여자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는 아님을 시사한다.

표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차이 검증 결과

구분	N	전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회피		죽음에 대한 개방성		
		M	SD	M	SD	M	SD	M	SD	
연령	일반인	82	3.15	.42	2.82	.65	2.97	.62	3.67	.56
	대학생	243	2.80	.47	2.40	.62	2.83	.72	3.18	.66
	t		5.939***		5.102***		1.645		6.075***	
종교	종교없음	153	2.75	.42	2.36	.59	2.77	.71	3.11	.61
	종교있음	172	3.02	.49	2.64	.69	2.96	.68	3.48	.68
	t		-5.466***		-4.105***		-2.442*		-5.044***	
성	남자	194	2.86	.50	2.53	.62	2.78	.73	3.26	.72
	여자	131	2.95	.44	2.47	.69	3.00	.63	3.37	.59
	t		-1.738		.800		-2.982**		-1.503	
결혼	기혼	78	3.17	.43	2.84	.65	2.98	.66	3.69	.64
	미혼	243	2.80	.46	2.39	.60	2.83	.71	3.18	.62
	t		6.433***		5.560***		1.588		6.280***	

*p<.05, **p<.01, ***p<.001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 차이

[표 3]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적인 죽음불안에서 연령(t=-3.309, p<.001), 종교(t=2.044, p<.05), 성(t=-2.903, p<.01), 결혼(t=-3.33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3.38±.49)이 일반인(3.17±.44)이 보다 죽음불안이 더 높았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는 감소한다는 김정재[43]의 결과와 맥을 같이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더 높다고 보고한 김태현·손양숙[1]과는 차이가 있었다. 종교가 있는 사람(3.27±.49)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 (3.38±.48)의 죽음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사람의 종교불안이 더 낮다는

최영이[31]의 결과와 같았다. 이는 사후세계를 믿는 종교인들이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인식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죽음불안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지며 종교가 죽음불안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성별에서는 여성(3.42±.45)이 남성(3.26±.51)보다 죽음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죽음불안이 높다고 보고한 조지연[20], 서혜경[21]이 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태도 중 죽음에 대한 개방성에서 여성이 더 긍정적인 태도였음에도 죽음불안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수용적이라고 해서 죽음불안이 낮거나 없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죽음에 대해 긍정적이면 죽음불안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차이가 있었다. 결혼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기혼자(3.17±.42)보다 미혼자(3.38±.49)의 죽음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거노인보다 가족동거노인이 죽음불안, 존재상실에 대한 불안,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 사후결과에 대한 불안이 높다고 보고한 김은실[40]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표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 차이 검증 결과

구분	N	전체		인지-정서적 불안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		시간흐름의 빠름에서 오는 불안		
		M	SD	M	SD	M	SD	M	SD	
연령	일반인	82	3.17	.44	2.87	.68	3.39	.63	3.26	.78
	대학생	243	3.38	.49	3.23	.75	3.47	.60	3.42	.86
	t		-3.309***		-3.924***		-1.080		-1.487	
종교	종교없음	153	3.38	.48	3.28	.73	3.47	.62	3.40	.83
	종교있음	172	3.27	.49	3.02	.75	3.43	.60	3.37	.85
	t		2.044*		3.227***		.599		.280	
성	남자	194	3.26	.51	3.04	.78	3.40	.64	3.35	.90
	여자	131	3.42	.45	3.30	.67	3.52	.54	3.43	.75
	t		-2.903**		-3.104**		-1.791		-.905	
결혼	기혼	78	3.17	.42	2.88	.66	3.33	.59	3.31	.74
	미혼	243	3.38	.49	3.24	.75	3.49	.61	3.42	.87
	t		-3.388***		-3.819***		-2.033*		-1.007	

*p<.05, **p<.01, ***p<.001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정서적 불안에서는 연령($t=-3.924, p<.001$), 종교($t=3.227, p<.001$), 성($t=-3.104, p<.01$), 결혼($t=-3.819,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인지 정서적으로 느끼는 죽음불안은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요인에서는 결혼유무($t=-2.033, p<.05$)만 차이가 있어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가 변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시간흐름이 빠름에서 오는 불안은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나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과 함께 시간의 빠른 흐름이 죽음불안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의 상관관계

[표 4]는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간, 즉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 죽음에 대한 태도는 전체 죽음불안과 $p<.001$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의 관계를 살펴보면,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불안의 하위 요인인 인지·정서적 불안($r=-.601, p<.001$),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r=-.126, p<.01$), 시간흐름의 빠름에서 오는 불안($r=-.138, p<.01$)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시간흐름의 빠름에서 오는 불안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죽음이 빠르게 다가온다는 불안이 신체변화나 인지 정서적 불안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죽음에 대한 회피요인 죽음불안의 하위 요인 중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r=.136$)에만 $p<.01$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죽음을 회피할수록 신체가 변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에 대한 개방성요인은 죽음불안의 하위 요인 중 인지·정서적 불안($r=-.216, p<.001$)에만 (+)의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죽음에 대해 수용적이며 개방적일수록 심리적 불안이 낮음을 의미한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명	죽음태도				죽음불안			
	죽음태도 전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회피	죽음에 대한 개방성	죽음불안 전체	인지 정서적 불안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	시간흐름의 빠름에서 오는 불안
죽음태도 전체	1							
죽음에 대한 두려움	.694***	1						
죽음에 대한 회피	.722***	.241***	1					
죽음에 대한 개방성	.720***	.267***	.274***	1				
죽음불안 전체	-.197***	-.438***	.086	-.088	1			
인지 정서적 불안	-.396***	-.601***	-.050	-.216***	.715***	1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	-.003	-.126**	.136**	-.025	.521***	.137**	1	
시간흐름의 빠름에서 오는 불안	.011	-.138**	.097	.057	.731***	.257***	.064	1

*** $p<.001$, ** $p<.01$

4.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4.1 전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전체 죽음불안과의 관계

[표 5]는 전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전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표 5]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불안에 $p<.0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beta=-.197$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죽음에 대한 태도 변수의 죽음불안에 대한 설명력은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죽음불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의 관계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B	β	t	F	R ²
죽음에 대한 태도	-.201	-.197	-3.614***	13.059***	.039

***p<.001

4.2 하위 요인별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과의 관계

(1) 하위 요인별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인지·정서적 불안과의 관계

[표 6]은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 요인들이 죽음불안의 하위 요인 중 인지·정서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죽음에 대한 태도 3개의 하위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β -.607, t =-13.055, p <.001)과 죽음에 대한 회피(β -.120, t =2.586, p <.01)가 인지·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죽음에 대한 태도 변수가 인지·정서적 불안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3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수록 인지·정서적 불안은 감소하나, 죽음에 대한 회피가 클수록 인지·정서적 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의 인지·정서적 불안과의 관계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B	β	t	F	R ²
죽음에 대한 두려움	-.698	-.607	-13.055***	64.814***	.377
죽음에 대한 회피	.129	.120	2.586**		
죽음에 대한 개방성	-.096	-.086	-1.843		

p<.01, *p<.001

(2) 하위 요인별 죽음에 대한 태도와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과의 관계

[표 7]은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 요인들이 죽음불안의 하위 요인 중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죽음에 대한 태도 3개의 하위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β -.162, t =-2.813, p <.01)과 죽음에 대한 회피(β -.184, t =3.190, p <.01)가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죽음에 대한 태도 변수가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수록 신체불안에 대한 불안은 감소하나, 죽음에 대한 회피가 클수록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의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과의 관계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B	β	t	F	β
죽음에 대한 두려움	-.151	-.162	-2.813**	5.187**	.046
죽음에 대한 회피	.160	.184	3.190**		
죽음에 대한 개방성	-.029	-.033	-.561		

**p<.01

(3) 하위 요인별 죽음에 대한 태도와 시간의 흐름이 빠름에서 오는 불안과의 관계

[표 8]은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 요인들이 죽음불안의 하위 요인 중 시간의 흐름이 빠름에서 오는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죽음에 대한 태도 3개의 하위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β -.187, t =-3.240, p <.001)과 죽음에 대한 회피(β -.122, t =2.108, p <.05)가 시간의 흐름이 빠름에서 오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죽음에 대한 태도 변수가 시간의 흐름이 빠름에서 오는 불안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수록 시간의 흐름이 빠름에서 오는 불안은 낮으나, 죽음에 대한 회피가 클수록 시간의 흐름이 빠름에서 오는 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의 시간의 흐름이 빠름에서 오는 불안과의 관계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B	β	t	F	β
죽음에 대한 두려움	-.241	-.187	-3.240***	4.660**	.042
죽음에 대한 회피	.147	.122	2.108*		
죽음에 대한 개방성	.092	.074	1.266		

*p<.05,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과 비 노년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 종교유무, 성별 및 결혼유무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요인 별로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특성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는 대학생보다 일반 성인이 죽음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김형철[12], 서혜경[21] 등의 결과와 맥을 같이했다. 종교가 있는 사람에 없는 사람보다 죽음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최영이[31]의 연구를 지지했으나 조지연[20], 이경희[8]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하위 요인별로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요인에서는 일반성인, 종교가 있는 사람, 기혼자의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고, 죽음에 대한 회피요인에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여성의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죽음에 대한 개방성요인에서는 일반성인, 종교가 있는 사람, 기혼자의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 특성에 따라 죽음불안의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인 죽음불안에서는 일반성인보다 대학생의 죽음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재[43]의 연구와 맥을 같이했으나 김태현·손양숙[1]과는 차이가 있었다.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의 죽음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사람의 죽음불안이 더 낮다는 최영이[31]의 결과와 같았다. 성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죽음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개방성에서 더 긍정적 태도였던 여성들이 죽음불안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해서 죽음불안이 낮거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과 함께 죽음불안을 낮춰주는 것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혼유무 역시 차이가 있었고, 기혼자 보다 미혼자의 죽음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김은실[40]의 결과를 지지했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정서적 불안요인에서는 대학생, 종교가 없는 사람, 여성 및 미혼자의 죽음불안이 더 높았고,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요인에서는 결혼유무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기혼자보다 미혼자의 불안이 높았다.

셋째,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은 상관이 있었다.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죽음에 대한 두려움요인은 죽음불안의 하위 세 요인(인지·정서적 불안,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 시간의 흐름이 빠름에서 오는 불안) 모두와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시간흐름이 빠름에서 오는 불안과 가장 강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죽음에 대해 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시간이 빨리 흘러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죽음에 대한 회피요인은 신체변화에 대한 불안에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변화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을수록 죽음을 생각하지 않거나 죽어가는 사람 보는 것을 싫어하는 등 외면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개방성요인은 죽음불안 중 인지·정서적 불안에만 상관이 있었다.

넷째,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 분석한 결과 전체 죽음에 대한 태도는 전체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죽음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에도 죽음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후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죽음에 대한 두려움요인과 죽음에 대한 회피요인은 죽음불안의 하위 세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죽음을 외면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등의 회피는 죽음에 대해 불안이 크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결과여서 누구나 언젠가 맞게 될 자신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불안을 낮춰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죽음불안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를 낮추고 죽음을 수용하는 등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불안을 낮춰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죽음을 수용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임에도 죽음에 대한 불안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이므로 죽음불안을 낮춰주는 여러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대학생들이 성인에 비해 죽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죽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소에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죽음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하며 무서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죽음 불안을 낮춰주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별도의 기관보다는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같은 이유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도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사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노인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죽음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음에도 죽음불안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면 죽음불안이 낮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생각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불안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줄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대학생, 여성, 종교가 없는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태현, 손양숙,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연구", 한국노년학회, 제14권, 제1호, 1984.
 [2] 고승덕, 김은주, 김영규, "노인의 죽음준비 교육이 죽음의 불안도에 미치는 요인분석연구", 보건

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16권, 제2호, pp.81-91, 1999.
 [3] 손지영, 배우자사별이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 장미란,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5] 박형규,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임종교육서비스·사회적 지지·자아통합감에 따른 태도 분석, 강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6] 김은미,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임종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7] 현은민, "노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제2호, pp.31-56, 2005.
 [8] 이경희,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준비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9] 김홍철, "자아통합감이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죽음준비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10] 한미정, 최정윤,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pp.167-181, 1999.
 [11] 서혜경, 윤민석, "성별과 배우자 유무가 죽음불안도 4가지 세부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통권39호, 봄호, pp.249-272, 2008.
 [12] 김형철, 죽음준비교육이 일 노인복지관 노인들의 죽음불안 및 태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13] 고길란 이영숙, "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7권, 제4호, pp.639-648, 2008.

- [14] 이지영, 이가옥,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 노년학, 2004.
- [15] 김지현, “청년 집단의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4권, 제2호, pp.11-36, 2005.
- [16] 오진탁, 김춘길,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년학, 제29권, 제1호, pp.51-69, 2009.
- [17] 이이정, “노인 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8] 배영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죽음의 세계*, 서울 교문사, 1992.
- [19] 이영화, “죽음준비교육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20] 조지연, “죽음에 대한 불안태도 연구: 서울거주 청년기·성인가 노년기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21] 서혜경, “성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남 여 노인들의 임종과 죽음에 대한 불안도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7권, 제2호, pp.89-102, 1990.
- [22] 심민경, *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3] 안경아, *농촌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준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4] 이옥자, “일부 대학생의 죽음 관련 태도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6권, 제4호, pp.389-397, 2007.
- [25] 최영희, “대학생과 노인의 죽음공포와 죽음불안 및 생활만족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제14권, 제4호, 2007.
- [26] 신금주, *죽음준비교육이 중장년층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연구*, 호서대학교 문화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7] 김태련,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 제1권, 제1호, 1988.
- [28] 이은경,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 내외통제성 및 대처방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9] 이예중, “노인의 죽음준비인식과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0] 최외선,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7권, 제4호, pp.755-773, 2007.
- [31] 최영이, “노인의 죽음인식 및 죽음준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2] 윤남숙, *노인의 성격유형과 죽음불안도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33] Glass, 1990.
- [34] 전영기, *노년기 죽음불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5] Erikson, “*Children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1982.
- [36] Kubler-Ross, 류시화 역, *이레, 인생수업*.
- [37] 최영임, “대학생과 노인의 죽음공포와 죽음불안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pp.74-75, 2007.
- [38] 안경아, “농촌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준비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교육연구, 제6권, pp.39-52, 2011.
- [39] 한미정,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죽음불안의 발달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40] 김은실, *독거노인과 가족 동거노인의 죽음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1] Wong, “Death attitude profile-rever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R. A. Neimeyer(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121-148, Washington D. C.: Taylor and Francis, 1994.

- [42] P. T. P. Wong and L. Watt, "What types of reminiscence are associated with successful aging?," *Psychology and Aging*, Vol.6, pp.272-279, 1991.
- [43] 김경자, *종교 참여에 따른 노인의 죽음불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44] 이영순, *노인의 죽음준비와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45] 김은희, 이은주,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39권, 제1호, pp.1-9, 2006.
- [46] L. J. Collett and D. Lester, "The Fear of Death and Fear of Dy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1969.
- [47] D. I. Templer,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Vol.16, pp165-177, 1970.
- [48] 장휘숙, 2000(척도).

송 선 희(Sun-Hee Song)

정회원



- 1990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 (문학사)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문학 석사)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교육 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교육심리, 노인심리, 노인교육

저 자 소 개

임 송 자(Song-Ja Lim)

정회원



- 1986년 2월 : 성균관대학교(문학사)
 - 2007년 2월 : 호서대학교(문학석사)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박사수료
 - 2008년 3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노인복지, 노인상담, 호스피스